

# “누구의 엄마·아내 아닌 내 인생에 올인하자”

여성 노년의 삶 리디자인 전도사 여성학자 박혜란



“우리는 엄마이면서, 아내이면서 동시에 아닙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의 주체적인 여성입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인간 나’의 인생을 지금 이 시점에서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박혜란 (사)여성·문화 네트워크 대표(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전 이사장)에게 오늘은 ‘난생 처음 살아보는 날’이면서 ‘가장 소중한 날’이다. 지난해 고희(高希)를 맞은 박 대표가 지난 1월 펴낸 에세이집 ‘오늘, 난생 처음 살아보는 날’이나 한 달 5~10차례 갖는 강연을 통해 강조하는 핵심은 한결같다. ‘(여성들이) 자녀인생에 올인 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새로 디자인(Redesign)하라’는 것이다. 자신 역시 대학 졸업 후 기자로 활동하다 육아를 위해 10년간 전업주부, 요즘 표현으로 ‘경단녀(경력단절녀)가 됐다’ 39살에 늦깎이로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열었다. 지난 4월에는 30여년간 양성평등 문화 저변 확대와 문화 다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제36회 세종문화상’(문화 다양성 부문)을 수상했다. 최근 박 대표를 서울에서 만나 여성문제와 자녀교육, 노년의 인생

**가수 이적의 어머니**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행복한 아이로 키워야”



30대 시절의 박 대표. 앞줄 가운데가 둘째아이인 가수 이적이다.

설계에 대해 들었다.  
◇공부보다 행복한 아이로 키워야=“한국 사회가 고도성장을 이루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30년 동안 ‘아이들 어떻게 키웠느냐’ 여성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인적이 훌륭한 사람이 잘 키운 것이 아니라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로 그 아이를 잘 키웠느냐, 못 키웠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돼 버린 거예요.”

박 대표는 ‘여성학자’와 더불어 ‘가수 이적엄마’로 유명하다. 사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고도 아들 셋을 명문대에 보내 ‘육아 멘토’로도 불린다. 이들은 현재 대학 건축학과 교수와 가수, 드라마 PD로 창의적인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둘째 아들이 가수 이적(본명 이종준)이다.

박 대표는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강연 요청을 보며 ‘학부모들이 왜 자신의 육아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지’ 자문해봤다고 한다. 세 아들 성장 과정을 담은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도 발간된 지 21년째 꾸준히 읽히고 있다. 박 대표가 내린 결론은 지금도 3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일등엄마’, ‘홀찌엄마’의 사회적 기준은 변함없고, 오히려 대학입시와 육아에 대한 엄마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박 대표는 왜 남들과 거꾸로 가는 자녀교육을 했을까?

“(제 아버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답나’로 평가하신 분이세요. 그분 교육철학은 ‘공부 잘하는 것들은 대부분 인간성이 더럽더라’였

어요. (웃음) 어렸을 때부터 ‘몸 튼튼하게, 친구와 사이좋게, 형제간에 우애 있게’ 세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저 역시 ‘아이들에게 공부, 공부하지 않겠다’,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가수 이적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결’로 독서를 들었다. 큰 책상에서 공부하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도 따라서 책을 보고 숙제를 했다는 것. 그 역시 직접 가사말을 쓰고 곡을 만드는 한편 판타스틱 픽션 ‘지문 사냥꾼’(2006년)을 펴낸 바 있다.

◇오늘, 난생 처음 살아보는 날=박 대표는 39살에 늦깎이로 ‘여성학’ 공부를 시작했다. ‘여자 나이 마흔이면 환갑’이라며 주위에서 만류했다. 여성학을 공부하며 새롭게 눈을 뜨면서 나 자신이 보이고, 여성이 보이고, 사회가 보이고, 세계가 보였다. 마흔에 접어들었다고 말하는 까닭이다.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면 아이를 셋 둔 것과 여성학을 공부한 것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로 손꼽는다.

박 대표는 지난해 5월 발행한 서울 강남역 ‘여혐’(여성혐오) 사건은 ‘똥 가르키 양극화’ 때문에

**마흔에 여성학 공부 시작**  
“페미니즘 궁극적 목적은  
남녀·세대 차별 없애는 것”

발생했다고 본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강화돼야 하고, 남성들도 ‘페미니스트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여혐’은 경제상황과 맞물리는 것 같아요. 경쟁에서 도태된 남성들이 사회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만만한 여성에게 ‘못 잡아’ 이렇게 하는 거죠. 여성학의 적은 남성이 아니라 ‘남성 가부장제’예요. 남성들도 페미니스트가 돼야 해요. 페미니즘(여성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녀, 인종, 세대와 같은 구분에 의한 차별을 안 하는 겁니다.”

박 대표가 쓴 ‘오늘, 난생 처음 살아보는 날’을 읽다 보면 ‘버킷 리스트’가 눈길을 끈다. 박 대표는 어느 날 강연장에서 한 젊은 엄마로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여든 살까지 ‘꼭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꼽아 리스트를 떠올렸다.

①마음에 드는 도시에서 한 달씩 살아보기  
②연극무대에 서기  
③캐리커처 배우기  
④손주들이 입을 동화책 쓰기  
⑤제주도 올레 일주  
⑥뱃살빼기  
⑦기타 배우기  
⑧다큐멘터리 찍기  
⑨콘도처럼 간단하게 살기  
⑩기부금 조금씩 늘려가기

이 가운데 10번은 ‘세종문화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3000만원을 기부해 완료했다. 나머지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 올 가을이나 내년 봄쯤 일본 도쿄에 갈 계획이다.

/서울=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장애·비장애인 문화예술한마당 작가 650명 작품 한 자리서 본다

13~19일 ‘다르기전’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장애·비장애인문화예술한마당 ‘2017 다르기전’이 13일부터 19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다.

올해 4번째를 맞는 이번 전시는 전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 65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순우리말인 ‘다르기’는 ‘더불어’, ‘함께’라는 뜻이다. 각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신명난 문화예술한마당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다르기 전’의 출발은 지난 2014년이다. 조영대 신부, 김종훈 화가와 함께 이번 대회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정한을 작가가 장애를 가진 친구 전시회에 들렀다 일본 장애인 작가를 만나 “언젠가 함께 전시회를 열자”는 약속을 한 게 시작이었다.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희망’은 ‘현실’이 됐고 그해 70여명이 일본에서 ‘한일 장애인과 비장애인미술동행전-Open and Close’를 열었다.

전시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함께 했던 이들이 힘을 모아 ‘다르

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500여명이 참여하는 전시회를 열었고 지난해에는 일본 작가들을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행사에는 서양화, 한국화, 서예, 판화, 조각, 공예, 도자기,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 650여명이 참여해 각자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인다.

13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식전 행사에서는 사물놀이, 난타 공연이 진행되며 캐리커처 그리기 등 부대 행사도 열린다.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일을 다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르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새로운 문화예술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정한을 추진위원장은 “또 전시 뿐 아니라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어울려 ‘비빔밥’ 같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도 다르기 행사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사)광주장애인미술협회와 국제장애인비장애문화예술교류협회 주최·주관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5년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린 ‘다르기전’ 행사 모습.

### ‘미디어 338’ 아카이브 릴레이전 참여 작가 모집

미디어아트플랫폼 특화 전시공간 ‘미디어 338’에서 하반기 기획전 ‘아카이브 릴레이전’에 참여할 작가를 모집한다.

하반기 기획전 ‘아카이브 릴레이전’은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2개 팀(작가)을 선정해 릴레이로 진행된다. 1차 전시는 8월 16일~8월 31일, 2차 전시는 9월 5일~9월 20일까지다.

작품장르는 미디어아트 구현 및 평면, 조형, 기타 설치와 퍼포먼스 등 미디어

와 연계한 모든 융·복합 장르가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단체)으로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작가수, 작품수는 제한이 없다.

참여한 작가(팀)에게는 전시공간(96.3㎡) 및 기본 전시장비(모니터, 스크린, 프로젝트 등)를 지원하고, 1회당 지원금 300만원과 홍보물제작, 언론 홍보 등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감은 26일까지다. 062-670-74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